



2013년 5월 29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TPP로 보는 세상

• 계량분석

2013년 예상 순이익 하향세 지속

• 이머징마켓 동향

소비증가, 투자확대 기대로 상해지수 상승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시그네틱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자 외 5개 종목

• 산업분석

건설/건자재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5/21(화)	05/22(수)	05/23(목)	05/24(금)	05/27(월)	05/28(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81.09	1,993.83	1,969.19	1,973.45	1,979.97	1,986.22
	등락폭	-1.34	12.74	-24.64	4.26	6.52	6.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27(11)	452(6)	235(6)	421(5)	439(9)
		하락(하한)	280(2)	351(2)	603(0)	386(2)	381(3)
	ADR	124.79	122.62	114.76	109.24	109.11	111.25
	이격도	10 일	100.70	101.14	99.83	100.07	100.22
		20 일	101.23	101.71	100.32	100.44	100.70
	투자심리	60	70	6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246	326	343	269	252	298
	거래대금 (십억 원)	3,788	4,534	4,646	3,668	2,927	3,172
코스닥	코스닥지수	572.69	574.25	569.34	574.06	577.56	585.76
	등락폭	5.37	1.56	-4.91	4.72	3.50	8.20
	등락종목	상승(상한)	527(9)	452(7)	235(8)	550(8)	573(7)
		하락(하한)	280(1)	351(0)	603(1)	368(2)	353(3)
	ADR	115.17	113.24	105.29	103.04	106.52	107.40
	이격도	10 일	100.62	100.89	100.16	100.97	101.45
		20 일	101.30	101.34	100.34	101.08	101.53
	투자심리	60	70	6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384	450	504	445	402	499
	거래대금 (십억 원)	2,103	2,280	2,490	2,115	1,987	2,45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642.5	710.9	811.0	150.7	100.8	188.1	54.0	20.2	297.205	28.9
	매도	1,682.5	780.8	697.5	140.6	102.8	148.2	64.4	27.6	213.8	32.7
	순매수	-40.0	-69.8	113.6	10.1	-2.0	39.9	-10.4	-7.4	83.4	-3.7
	5월 누계	-229.8	-213.8	590.7	-295.3	267.1	-147.5	-0.9	-82.8	850.1	-147.1
	13년 누계	842.6	-5,969.3	5,693.9	1,486.0	905.3	-1,568.5	154.5	6.2	4,710.4	-567.2
코스닥	매수	2,212.5	124.0	125.4	29.5	11.7	31.9	16.3	2.8	33.3	19.8
	매도	2,266.7	100.0	94.8	22.1	9.9	24.9	6.8	2.7	28.4	20.2
	순매수	-54.2	24.0	30.6	7.4	1.8	7.0	9.5	0.1	4.8	-0.4
	5월 누계	144.0	189.4	-222.4	-42.9	25.1	-44.2	-22.0	-14.3	-125.0	-111.0
	13년 누계	-1,346.5	907.8	880.8	39.4	78.5	343.6	-87.7	-25.9	542.7	-442.2

TPP로 보는 세상

5월 월간 밴드	1,900-2,020pt
2013년 연간 밴드	1,800-2,250pt
12MF PER	9.4배
12MF PBR	1.04배
Yield Gap	8.0%P

- ▶ 7월 15일 TPP 18차 협상부터 일본 참여키로 : 중국이 배제된 거대무역블록
-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제무역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준 일본, TPP로 돌아오나
- ▶ 투자전략 : 중소형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내수형, 소재/부품형의 2가지 형태

■ TPP로 보는 세상 : 7월 15일 말레이시아 18차 협상부터 일본이 참여

오는 7월 15~25일 제 18차
TPP 협상부터 일본 참여

오는 7월 15~25일 말레이시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18차 협상이 시작된다. 우리가 18차 라운드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협상부터 일본이 참여키로 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 WTO 가입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의 판도가 크게 뒤집혔던 것처럼, TPP 역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2개국 사이의 협약인 FTA와 달리 TPP는 다자간 무역협약이다. 국제교역 증진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따로따로 FTA가 체결되다 보니 국가별로 협정들이 뒤엉켜 오히려 교역이 후퇴하였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FTA보다 TPP가 자유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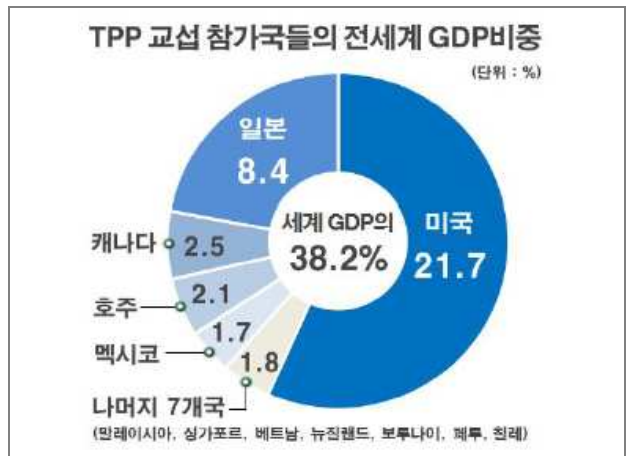
가장 큰 특징은 '성역없는 관세 철폐'다. 무역 블록을 설정해 해당 국가간 관세를 전면 철폐해 역내 교역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FTA보다 자유화 수준이 한 단계 높다. 물론, 캐나다(설탕), 호주(유제품), 베트남(섬유) 등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를 두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일본이 협상에 참여키로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전 분야에서의 관세 즉시 철폐가 목표다. 현재 북미 2개국(미국, 캐나다), 남미 3개국(멕시코, 칠레, 페루), 아태 7개국(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이 협상중이다.

[그림 1] TPP : 중국이 배제된 미국과 일본의 무역블록



자료: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그림 2] TPP 12개국은 전세계 GDP의 38.2%를 차지



자료: IMF,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재인용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배제된다는 것

일본이 참여키로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대 무역블록에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TPP는 중국이 가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TPP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국영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입장인데다 지적재산권, 노동문제, 환경문제 등 아직 중국이 다루기 힘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TPP 12개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나 베트남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소리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를 확대 모색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될 만도 하다.

어쨌거나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와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을 배제한 역내 교역 활성화 대책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림 3]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통합 경쟁현황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재인용

우리나라는 일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류한 상황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나라도 서둘러 TPP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페루, 베트남, 칠레 4개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어 TPP 협상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아 당분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¹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다 해도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문제가 커진다. 지금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TPP 협상 조기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¹ 9) 2013년 4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 ‘TPP 협상을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에서 재인용, “Korea Sees Itself as a Bridge Between TPP,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Inside U.S. Trade, Vol.31, No.11, Mar.15, 2013, p.16.

미국-일본 중심의 무역재편 :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기업은 불리

아무튼 이대로 TPP 협상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중국과 한국에게는 더없이 불리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일본과 겹쳐있다.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의 1위부터 10위까지 대미 수출품목은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적게는 24%, 많게는 93%에 달한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크게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

여기에 중국이 TPP 12개국과의 무역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데에 따른 중간재 수출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 전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 감소할 수록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는 그 타격을 고스란히 입는 것이다.

미국 이외 TPP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상당하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일본 외 TPP 10개국 차지하는 비중은 '12년 기준 13.7%였다.

<표 1>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일본과 90% 이상 겹쳐 (단위: 백만달러)

2012 US Imports from S.Korea			2012 US Imports from Japan		수출경합도
Total		58,880	146,388		
1 위	일반차량	14,739	1 위	51,381	93.59
2 위	전기기기	12,771	3 위	20,031	46.74
3 위	기계류	11,173	2 위	34,037	50.05
4 위	광물성연료	3,107	10 위	621	84.23
5 위	철강제품	2,753	6 위	2,884	35.38
6 위	고무제품	2,156	7 위	2,712	81.48
7 위	철강	1,584	9 위	1,684	35.90
8 위	플라스틱	1,465	8 위	2,319	65.01
9 위	유기화학품	1,242	5 위	3,250	24.76
10 위	광학/정밀/의료기기	902	4 위	6,856	73.53
상기 10개 품목 합계		51,922	125,775		
수입총액 대비 비중(%)		88.2%	85.9%		

주: 수출경합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 A, B 양국이 C국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수출을 놓고 경쟁할 때 양국이 완전 경합관계에 있으면 100의 관계를 가지게 됨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재인용

<표 2> 한국의 TPP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 : 수출은 31.5%, 수입은 33.4%를 차지

(단위: 백만달러, %)

	관세율 (%)			수출		수입		무역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3.5	5.0	3.3	58,524	10.68	43,340	8.34	101,865	9.54
일본	5.3	23.3	2.6	38,796	7.08	64,363	12.4	103,159	9.66
싱가포르	-	0.2	-	22,887	4.18	9,676	1.86	32,564	3.05
베트남	9.8	17.0	8.7	15,945	2.91	5,719	1.1	21,665	2.03
호주	2.8	1.4	3.1	9,250	1.69	22,987	4.42	32,238	3.02
멕시코	8.3	21.4	6.3	9,042	1.65	2,591	0.5	11,633	1.09
말레이시아	6.5	10.8	5.8	7,723	1.41	9,796	1.89	17,519	1.64
캐나다	4.5	18.0	2.5	4,828	0.88	5,247	1.01	10,075	0.94
칠레	6.0	6.0	6.0	2,469	0.45	4,676	0.9	7,145	0.67
페루	3.7	4.1	3.6	1,472	0.27	1,639	0.32	3,112	0.29
뉴질랜드	2.0	1.4	2.1	1,465	0.27	1,339	0.26	2,804	0.26
브루나이	2.5	0.1	2.9	111	0.02	1,982	0.38	2,094	0.2
TPP 전체				172,512	31.49	173,355	33.38	345,873	32.39

주: 관세율은 2011년, 수출입과 무역액은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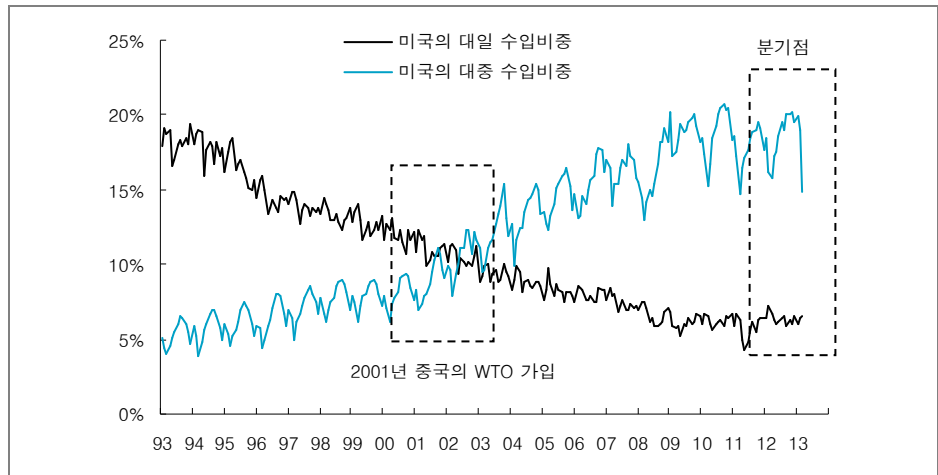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재인용,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WTO

극단적인 가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향후 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최근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전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001년 일본의 사례
: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미 수출 주도권을 넘겨줌

필자는 2001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일본이 중국에 대미 수출의 주도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일 수입비중은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했으나 2001년 미국의 대중 수입비중이 1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더욱 가파르게 감소한다.

[그림 4]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 미국의 대중 수입이 대일 수입을 압도하기 시작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2000년 이후 TOPIX 대형주
중소형주 대비 탄력 떨어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TOPIX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한다. 그러나 대형 수출주들이 포함된 TOPIX 대형주의 상대강도는 경기가 좋아진 2003년 이후에도 중소형주 대비 회복이 느리다. 이는 2000년 이후의 국제무역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림 5] TOPIX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2000년 이후 상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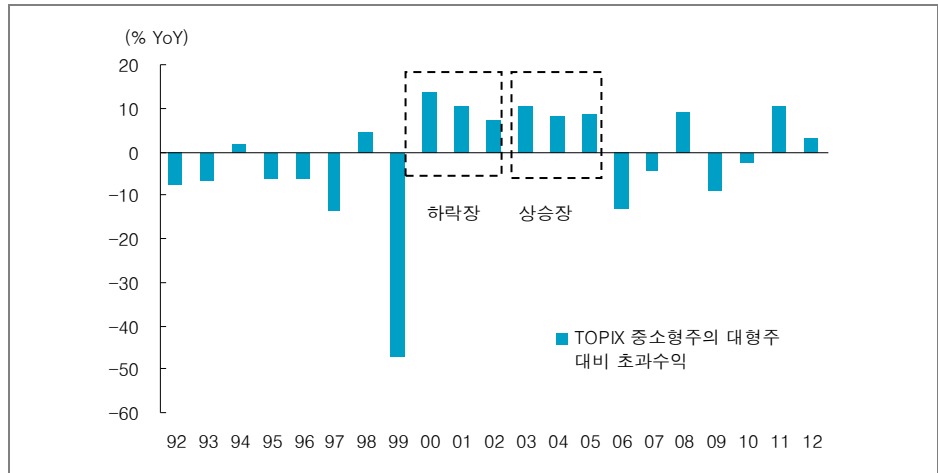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2000년 이후 6년간
TOPIX 중형주와 소형주는
대형주 수익률을 상회

실제로 2000년 이후 6년간 일본 TOPIX 중형주와 소형주는 대형주 수익률을 상회했다. 초과 수익률은 '00년 13.5%P, '01년 10.1%P, '02년 7.1%P, '03년 10.2%P, '04년 8.0%P, '05년 8.7%였다. 하락장이던 2000~02년과 상승장이던 2003~05년은 구분해서 생각해야겠지만 2000년 이후 IT 버블 붕괴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나은 수익률을 거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림 6] 2000년 이후 6년간 일본 TOPIX 중소형주가 대형주 수익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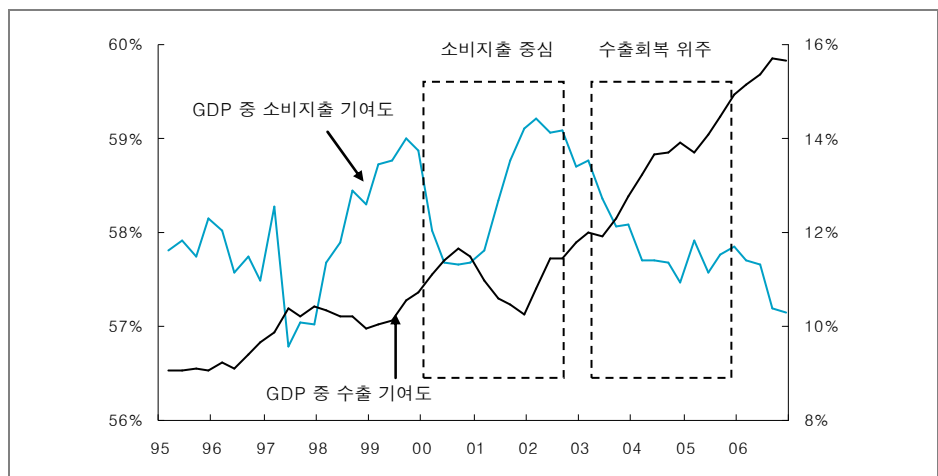


주: TOPIX Mid 400과 TOPIX Small cap의 연평균 수익률과 TOPIX Large 70 연평균 수익률과의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대형 장치산업보다는 소규모
내수산업이 많이 포진해
있는 중소형 지수

이는 중소형주에 대형 장치산업보다는 소규모 내수산업이 더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P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 수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소비지출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 수출감소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부양정책 등으로 소비지출 자체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7] 일본의 실질 GDP 분해 : 2000~02년 내수 소비의 GDP 기여율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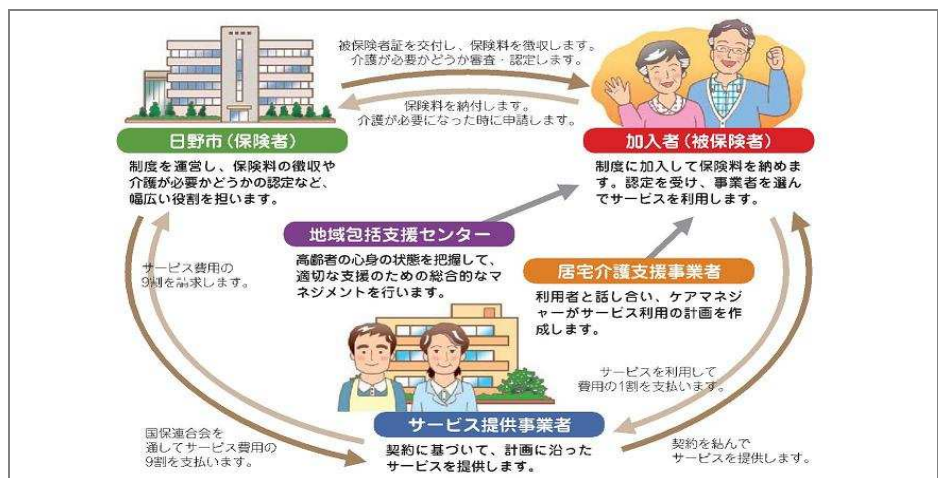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2000년 4월 개호보험 실시 :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내수 부양의 일환

그 중 하나가 2000년 4월에 실시된 개호보험(介護保険)이다. 개호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취사, 쇼핑, 배설, 세탁, 청소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상자에 대한 서비스다. 일본은 고령화로 의료보험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331%에 육박해 노인의료비로 인해 의료보험이 원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되자 2000년 4월 노인 전문보험인 개호보험을 도입해 의료보험과 구분짓기 시작했다. 노인요양보험과 비슷한 개념이며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65세 이상은 제1호 피보험자로 분류돼 무조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생기며 65세 이하는 제2호 피보험자로 15종류의 특정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급한다.

[그림 8]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개호보험 안내 예시 : 도쿄 히노(日野)시



자료 : <http://www.city.hino.lg.jp>

우리나라 국민행복연금과 무 상보육 :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 한계, 내수 확대

우리나라도 최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다. 0~6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의무 교육도 다르지 않다. 수출을 통한 국가의 성장 전략이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완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투자전략 : 2가지 투자 아이디어

미국 경기가 서서히 본 궤도가 진입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나 한국 수출기업들의 수혜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은 내부 금융시스템 통제 문제로 7%대 성장에 만족하는 모습이고, 엔화 약세도 강해지고 있다. 게다가 필자가 오늘 논의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TPP를 통한 무역질서 재편은 한국에 그다지 유리한 방향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시장이든 프리미엄은 존재한다. 특히 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과 디스카운트 요인이 팽배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본 란에서는 TPP와 관련해 크게 2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TPP 12개국에 직접 진출해 있는 업체의 수혜 : 베트남의 FDI 증가세

첫째, TPP 12개국에 직접 진출해 있는 업체의 수혜를 기대한다. 일단 가장 큰 수혜로 지목되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중국보다 낮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23%로 낮춰 2014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FDI가 꾸준히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 본다.

특히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의하면, TPP 관련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는 해외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선라이즈의 경우 베트남 티엔 남 투자개발과 함께 2,400만 달러를 투자해 염료, 섬유 부문의 합작업체인 티엔 남 선라이즈 JSC를 출범했고 오는 2014년부터 월 1백만 미터의 원단 및 300톤의 니트 직물을 생산할 예정이다. 글로벌 SPA 브랜드와 대형 리테일 바이어들도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사(면사), 제/편직과 염색까지 현지에서 일괄 조달할 수 있는 버티칼 시스템 구축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세실업, 경방 등 섬유기업 진출 시작. CJ CGV, 오리온 롯데마트 등 자체 내수시장 겨냥 기업도 관심

국내 업체의 경우 대규모 봉제 및 편직 공장이 집중돼 있는 베트남 호치민 인근에 충남방, 방림방에 이어 경방이 진출했다. 400억원 규모를 투자해 2만 6,000추 규모의 면방 공장을 완공하여 2013년 3월말부터 본격 가동 중이며 올 연말 추가 증설을 계획 중이다. 한세실업의 경우 2013년 초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니트염색 전문업체인 CNT VINA를 인수해 최종 봉제 뿐 아니라 편직, 제직, 염색 등의 일괄 공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회사 이외에도 베트남 자체 내수시장 성장을 겨냥하여 진출한 CJ CGV, 롯데마트, 오리온 등도 성장성이 밝아 보인다.

둘째, 내수 중소형주 비중 꾸준히 늘려야

둘째, 내수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 당사 경제팀과 전략팀의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 전망은 그다지 비관적일 필요도 없으나 과거와 같은 대형주 중심의 V자 회복은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봉착했고,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다. 필자는 주식시장의 제반 상황은 좋지 않았으나 중소형주가 지속 초과수익을 거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TOPIX 1,700개 기업 중 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특징은 두 가지다. (9페이지의 <표 4> 참조)

2000~2002년 일본 TOPIX 5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어떤 기업인가?

1) 전형적인 내수주 : 부동산의 경우 개발이나 분양보다는 임대/중개/관리 등의 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눈에 띈다. 낡은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철도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사업에 나선 기업이나 시스템 키친 등 인테리어 기업들도 주가가 좋았다. 한편 가정용 냉동식품, 전문 슈퍼마켓, 술안주 전문업체, 라면 전문 체인점, 회전초밥 체인점, 카탈로그 의류, 개인과의 과전업체 등 업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성공한 내수기업들도 많이 눈에 띈다. 2000년 4월 개호보험이 개시되면서 의료기와 제약업종이 꾸준히 상승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2) 완성품 제조업체가 아니라 부품/소재 기업 : 해외공장 설립이 활발해지고 해외 다국적 기업에 납품하는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 기업들이 늘어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완성업체들의 해외공장 설립 영향도 있겠지만 신흥 완성품 업체의 부품수요가 늘어난 탓도 크다고 본다.

2013년 중국의 구조조정
: 우리나라의 득과 실

이는 최근 중국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일견 비슷하다. 중국 정부는 2013년 1월 정부 부처 공동으로 ‘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重點行業企業兼並重組的指導意見)’ 문건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철강, 선박, IT 산업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진행해 중소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10대 기업 산업집중도를 60~90% 까지 끌어올려 핵심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명확히 내보였다.

우리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완제품 업체들에게는 대형 경쟁사가 생겨나는 것이니 부정적이겠으나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기업의 경우 납품업체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인다.

〈표 3〉 중국의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KOTRA)

산업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자동차	-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의 품질 개선 노력으로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 부품 구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품기업과 중국 로컬 완성차 기업간 합자공장 설립 등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자동차 기업 구조조정으로 자체 브랜드 연구개발, 기술력이 향상되어 외국계 완성차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 조성 예상
철강	- 구조조정 후 중국 철강 업계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철강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가격 출혈경쟁 완화가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	- 구조조정 후 중국 철강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품질개선이 예상되나 현재의 기술격차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한국산과의 품질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
조선	- 아직까지는 한중간 조선설비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 후 설비수준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선박업이 건조능력에 비해 설비능력이 크게 떨어지나 합병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집중도와 기술수준을 높여 설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제고할 계획. 이는 우리 선박 설비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IT		- 화웨이, 레노버 등 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이후 기업 규모 확대와 기술력 집중을 통해 중국 IT 정보 산업 기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12.5 규획기간 중 집적 회로, 디스플레이 제품, 핵심 소자, 중요 전자 재료 및 디지털 전용 설비 측정기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IT 정보 분야에서 우리 제품과 중국 제품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표 4〉 2000년부터 2002년까지 TOPIX 편입 종목 중 50% 이상 상승한 종목들

	회사명	사업 내용
Large70	닛키 주식회사(JGC Corp)	석유화학 플랜트, 자원개발
	다이토 건축신탁	주택 임대사업. 중개, 관리, 집세보증 등 일관화 서비스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비철금속 및 전자재료. 자원개발 및 제련에 강점
	이온	종합슈퍼분야 1 위, 쇼핑센터, 슈퍼마켓
	스미토모 부동산	도쿄 도심부에서 오피스 빌딩 집중개발. 주택 리폼사업에 강점
Mid400	NOK Corp	자동차용 오일셀, 플렉서블기판(FPC)
	브라더스 공업	재봉틀, FAX, 프린터 등 디지털 복합기 생산
	도와 홀딩스	금속가공/제련, 환경/재활용, 열처리
	쓰무라 주식회사	의료용 한약재로 일본 국내시장 점유율 80%
	스탠리 전기	자동차용 조명, LED 등 전자기기. 혼다 납품비중 40%
	센츨렐 유리	판유리 일본내 3 위. 리튬이온 전지용 전해액 생산
	히사미츠 제약	불이는 진통소염제 1 위. 의료용 점유율 50%
	코니카 미놀타	인쇄, 복합기 전문업체
	이즈미	산요, 규슈, 시코쿠 지방의 유력 슈퍼마켓 체인
	니프로	일회용 의료기기 선도. 인공신장, 재생의료 등
	JSR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재료
	게이오전철 주식회사	도쿄 중서부 민자 지하철 운영.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 임대운영
	대일본 스미토모 제약	스미토모 화학 산하의 의료용 의약품 전문업체
	도요타 통상	도요타 그룹계열 상사. 물류, 원료조달 등 담당
	시마츄	사이타마현, 간토, 간사이 지방에서 가구점과 인테리어 센터 전개
	동경급행전철 주식회사	시부야 재개발. 부동산 판매에서 임대로 확장
	미쓰비시 UFJ 리스&파이낸스	리스업계 1 위. 종합금융사
	야마하	피아노, 기타 등 악기 전문생산. 반도체/AV 기기
	오다큐 전철 주식회사	신주쿠 거점 지하철. 하코네 관광개발
	게이힌 급행전철 주식회사	하네다 공항 인근 개발사업 전개
	일본수산	수산물 특화 식품회사. 가정용 냉동식품
Small	닛산 샤타이	닛산 자동차 RV 및 상용차 수탁생산
	카파 크리에이토	회전 초밥 체인점. 편의점용 김밥 및 빵류 납품
	쇼와	혼다 자동차에 파워 스티어링, 완충장치 납품
	다이도	"뉴요커" 의류 중견 브랜드
	쿠라쿠엔	후쿠시마 라면 체인점. 290엔의 저렴한 가격
	칼소닉 칸세이	닛산 자동차 에어컨, 계기 납품
	산요 인더스트리	경량 천정 및 바닥재, 시스템 책상 등 건자재
	아이치 스틸	자동차용 특수강. 도요타 납품 계열사
	트란콤	물류정보, 로지스틱스, 화물운송
	벨루나	여성의류 카탈로그 출판
	크린업	시스템 키친 및 세면대
	아이산 인더스트리	도요타 계열사. 전자제어, 연료분사 장치 부품 주력
	니시마츠야	유아동 의류, 생활잡화 체인점. PB 상품 중심 저가격 전략
	이토추 에넥스	이토추 상사 계열. 산업용 연료 및 LP 가스 판매. 발전 및 열공급
	산요 쇼카이	버버리 브랜드 수입 등 종합 어패럴
	나토리	오징어, 살라미, 치즈 등 다품종 안주 제조 전문업체
	리소교육	수도권 개별지도 과외파견. 유아교육, 교사파견, 영어회화 등
	토요타이어	트럭, 버스 등 대구경 고성능 타이어 전문
	라이프	식품 전문 슈퍼마켓
	도쿄테코	용접이 필요 없는 이형봉강, 재개발 관련 수요
	니폰케미팜	통풍, 진통제 등 제네릭 의약품
	하마교렉스	자동차 물류운송, 물류센터
	무사시 세이미츠	샤프트, 기어 등 자동차 부품. 혼다에 주로 납품
	루크(Look)	드레스 정장 등 여성의류 중견업체
	토요 잉크 홀딩스	인쇄 잉크 일본 1 위. LCD 패널용 안료도 생산
	군제 주식회사	남성 속옷 선두업체. 소재, 기능성 섬유, 전자재료
	치요다	신발 양판점 선두업체(도쿄구두 유통센터), 캐주얼 의류 '맥 하우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2013년 예상 순이익 하향세 지속

■ 2013년 예상 순이익 전월 대비 0.9% 하향, 삼성전자 제외시 3.4% 하향

당사 유니버스 종목의 2013년 예상 순이익은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2013년 예상 순이익이 크게 상향(8.3%)된 삼성전자를 제거하면 당사 유니버스 종목의 2013년 예상 순이익은 전월 대비 3.4% 낮아진다. EPS 수정비율(상향 종목수/전체 변경 종목수)은 46.2%로 50%선을 하회했다.

■ 마케팅비용 감소로 통신주 상향 vs 금리인하 및 규제 리스크로 증권주 하향

2013년 예상 순이익이 전월 대비 상향된 업종은 통신 및 반도체/반도체 장비이고, 하향된 업종은 보험 및 운송이다. 통신 업종(+11.6%)은 보조금 규제 강화로 인한 가입자 유치경쟁 완화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데다, SK텔레콤의 지분법 평가이익(SK하이닉스)이 크게 늘어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업종(+7.7%)은 메모리 시황 개선과 함께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잠정치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2013년 예상 순이익이 2.5조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보험 업종(-26.6%)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규제 리스크 증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반영으로 추정치가 급감하였고, 운송 업종(-25.3%)은 항공 및 해운 부문의 1분기 실적부진이 반영되면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었다.

■ 12개월 예상 PER은 9.2배, PBR은 1.0배

2013년 5월 24일 종가(KOSPI 1,973.5p) 기준 12개월 예상 PER은 9.2배다. 12개월 예상 PBR은 1.0배, 2013년 예상 배당수익률은 1.2%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상해증시 1%대 급등, H지수도 이틀째 상승

- ▶ 신지도부의 질적 성장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 유지
- ▶ 스위스와 FTA협약체결, 주식시장 인지도 및 배당세 개혁 전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 ▶ 저가매수세, 실적 개선 기대로 H지수 이틀째 상승

상해종합 1% 강세 마감.
보험, 부동산개발, 증권,
은행, 비철금속 등 급등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1%대 강세로 마감해 나흘 만에 다시 2,300p를 웃돌았다. 강보합세로 개장 후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강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거래금액은 1,203억 위안으로 직전 999억 위안에 비해 큰 폭 증가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최근 연이은 발언을 통해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유지됐고 스위스와 FTA협약체결, 주식시장 인지도 및 배당세 개혁 전망, 증권업 발전방안 검토 등의 요인도 매수심리에 기여했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IT, 전자업종이 동반 하락했으나 금융주가 저가매수세로 급등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보험(+3.5%), 부동산개발(+3.2%), 증권(+3.1%), 은행(+2.9%), 비철금속(+2.4%), 석탄(+2.3%), 항공(+1.7%), 해운(+1.1%), 운송(+1.0%), 전력(+1.0%), 석유/천연가스(+0.7%) 등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반면 통신서비스, IT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전자, 화학 등은 하락했다.

■ 홍콩 시장

H지수 이틀째 상승.
소비재, 증권, 유틸리티,
해운 등 대다수 업종 강세

홍콩H지수도 본토 증시 강세에 동조해 이틀째 상승했다. 강보합세로 출발한 후 지수 상승폭을 키웠다. 스위스와 FTA협약체결을 호재로 시계제조업체 등 소비재 관련주가 올랐고 모회사 자산매입 계획에 중국태평양보험이 급등해 보험주 강세를 이끌었다. 120일선에 이어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데 따른 저가매수세가 지속됐고 실적개선 기대와 해외증권사 투자의견 상향으로 유틸리티, 해운주도 강세였다. 그 외 자동차, 헬스케어, 은행, 음식료, IT, 석탄, 석유/천연가스, 광업 등 대다수 업종이 강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5/28(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21.32	1.24	0.70	6.58	2.30
홍콩 H	10,920.58	1.55	-1.47	0.02	-4.51
인도 SENSEX	20,133.85	0.51	0.11	3.23	3.64
러시아 RTS	1,401.66	1.20	-2.19	-0.39	-8.21
브라질 보베스파	56,395.94	-0.02	1.25	0.87	-7.47
베트남 VN	516.33	0.77	3.23	8.81	24.80
MSCI 이머징마켓	1,028.53	0.18	-1.87	-1.05	-2.53

주: 28일 오후 6시 2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재경신한 가운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코스피도 1,980P선에 안착

-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 1.980P선을 회복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1,990P선을 돌파. 나흘 연속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585P 안착에 성공,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 경신을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스피200' 지수에 신규 편입된 코스맥스가 급등한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등 북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올해 이른 무더위로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원자력발전소에서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며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대체 전력으로 부각된 스마트그리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으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CJ그룹주들은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제히 반등에 성공. 한편, 인수합병 우려감에 동양건설은 이틀째 급락세를 보였으며, 캐논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백산OPC도 급락

종목/이슈	내 용
코스맥스(044820) ▶52,100(+7.20%)	‘코스피200’ 편입 기대감에 급등세 -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 정기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 기대감에 급등세. 다음달 14일부터 적용됨 - 국내 화장품 브랜드샵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동사는 제조업자개발방식(ODM)업체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 등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남북 경험주	개성공단 정상화 기대감에 강세 - 북한이 조국통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방문하면 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기대감에 강세 - 삼환기업(000360, 상한가), 이화전기(024810, +11.98%), 삼부토건(001470, +10.00%), 제룡산업(147830, +8.23%), 로만손(026040, +7.21%), 에머슨퍼시픽(025980, +6.22%) 등 강세
스마트그리드주	원전 가동중단 소식에 강세 - 신고리와 신월성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가 대체전력으로 부각되며 강세 - 움니시스템(057540, 상한가), 누리텔레콤(040160, +12.31%), 일진전기(103590, +8.99%), 피에스텍(002230, +5.08%), 삼진엘앤디(054090, +4.74%), 선도전기(007610, +3.93%)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강원랜드(035250) ▶35,200(+5.55%)	- 9년 만에 게임기구를 약 50% 증설하고 신규 영업장을 개장함에 따라 올 3분기부터 내년 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텔코웨어(078000) ▶11,800(상한가)	-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IP기반구내교환기(IP-PBX) 가입자의 발신 호의 앵커링 결정 서버 및 방법과 이를 이용한 음성 호 연속성 서비스 제공 방법 관련 특허 취득 소식에 신고가 경신
엘오티베콤(083310) ▶6,700(+7.20%)	-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 급증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참고: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52주신고가)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시그네틱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시그네틱스 (033170)	3,590 (+7.8)	3,330 (5/22)	- 반도체 수급 개선 및 모바일 수요 확대에 따른 패키지 외주 주문량 증가 추세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 가동률 회복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 고부가가치 High-end 제품 비중 확대, 시스템 LSI투자 확대, 고객 다변화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내재
한국타이어 (161390)	53,100 (+10.9)	47,900 (5/02)	- 투입원가 하락과 브랜드 입지 및 Product mix 개선 등으로 1분기 수익성 개선 - 미국 내 경쟁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국 시장 회복 본격화 예상 - 글로벌 점유율 개선과 견고한 이익 안정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비에이치 (090460)	13,950 (-0.7)	14,050 (4/25)	- 갤럭시S4 출시 및 갤럭시노트3 등 High-end 스마트폰향 공급물량 증가와 태블릿PC 매출비중 확대에 힘입어 2013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삼성, LG, 노키아, 모토로라 등 다변화된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 캐파 증설을 통한 성장 모멘텀 지속 예상
다음 (035720)	83,600 (-3.7)	86,800 (4/11)	- 모바일 서비스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싱 게임 확대로 게임 매출 증가 예상 - RPS(Revenue Per Search; 검색쿼리당 매출) 상승에 힘입어 검색광고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기저 효과, 영업력 강화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하이닉스 (000660)	31,400 (+9.8)	28,600 (3/21)	- 갤럭시S4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DRAM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및 SSD 보급 확대로 NAND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 - 업황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며, 하반기 PC 수요 회복 시에는 PC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
우주일렉트로 (065680)	26,900 (-2.7)	27,650 (3/05)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하이닉스, 다음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성전자 (005930)	1,484,000 (-2.4)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7.3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대교우B (019685)	4,370 (+8.7)	4,020 (4/11)	789	62	63	673	6.5
			- 유아 및 초등학습지 시장 1위(점유율 35%) 업체로 러닝센터에 대한 투자완료로 2013년 이익 개선 예상 - 학습지 단가 인상 가능성과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모색 - 풍부한 자산가치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2012년 DPS기준 우선주의 예상 배당수익률 5%를 상회				
유한양행 (000100)	193,000 (+3.8)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5.7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81,900 (+5.5)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3.2
			- 2012년 휴대폰 부문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문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45,000 (-15.0)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7.8
			- 유가 안정과 경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22,200 (+21.3)	18,300 (1/21)	578	58	49	2,156	10.3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건자재: 집을 소비하는 시대

■ 일본에서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를 본다

한국 주택정책은 200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하게 신축(공급)에서 리모델링(수요 관리)로 이동 중이다. 4/1 대책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그 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하는 15년 이상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유도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장기적으로 매매차익 기대는 감소한 반면 주거 수준과 비용에 민감해진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수직증축, 대수선, 개별 개보수 등 다양한 리모델링 산업은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 뉴욕의 주택 예산비중도 신축 35%, 리모델링 37%로 역전됐다. 선진국 주택산업은 대부분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주택 개보수나 관련 금융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리모델링기를 지나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비즈니스 활성화 가능성

리모델링기를 거친 뒤 장기적으로 한국도 임대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자산 버블 후 임대인 보호 제도, 저금리, 매매차익보다 임대수익을 중시하는 단카이세대(46~49년생)의 인식변화 등으로 2000년대 초부터 임대 시장이 활성화됐다. 향후 공급시장의 성장둔화가 명백한 만큼 한국 건설사도 시공과 임대를 병행하는 일본의 ‘레오파레스21’, ‘타이토켄타쿠’ 등과 유사하게 주택사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다. 자본력과 오랜 준비가 요구되는 만큼 이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 건자재에 성장논리 부여, 건설사는 올해를 건전성 강화 기회로 삼아야

주택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신축주택 시장의 성장둔화로 침체를 겪어온 건자재 업체의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다. 주거비용에 대한 인식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규제 강화를 감안 시 해당 B2C 건자재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설업 측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의 최근 정책은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즉 건설사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미착공 PF 해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LG하우시스와 대림산업에 주목할 때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5/21(화)	05/22(수)	05/23(목)	05/24(금)	05/27(월)	05/28(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81.09	1,993.83	1,969.19	1,973.45	1,979.97	1,986.22
	등락폭	-1.34	12.74	-24.64	4.26	6.52	6.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27(11)	452(6)	235(6)	421(5)	439(9)	518(17)
	하락(하한)	280(2)	351(2)	603(0)	386(2)	381(3)	301(0)
	ADR	124.79	122.62	114.76	109.24	109.11	111.25
	이격도						
	10 일	100.70	101.14	99.83	100.07	100.22	100.35
	20 일	101.23	101.71	100.32	100.44	100.70	100.91
	투자심리	60	70	60	60	70	7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246	326	343	269	252	298
	거래대금 (십억 원)	3,788	4,534	4,646	3,668	2,927	3,172
	코스닥지수	572.69	574.25	569.34	574.06	577.56	585.76
	등락폭	5.37	1.56	-4.91	4.72	3.50	8.20
	등락종목						
	상승(상한)	527(9)	452(7)	235(8)	550(8)	573(7)	598(7)
	하락(하한)	280(1)	351(0)	603(1)	368(2)	353(3)	328(0)
	ADR	115.17	113.24	105.29	103.04	106.52	107.40
	이격도						
	10 일	100.62	100.89	100.16	100.97	101.45	102.53
	20 일	101.30	101.34	100.34	101.08	101.53	102.79
	투자심리	60	70	6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384	450	504	445	402	499
	거래대금 (십억 원)	2,103	2,280	2,490	2,115	1,987	2,456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642.5	710.9	811.0	150.7	100.8	188.1	54.0	20.2	297.205	28.9
	매도	1,682.5	780.8	697.5	140.6	102.8	148.2	64.4	27.6	213.8	32.7
	순매수	-40.0	-69.8	113.6	10.1	-2.0	39.9	-10.4	-7.4	83.4	-3.7
	5월 누계	-229.8	-213.8	590.7	-295.3	267.1	-147.5	-0.9	-82.8	850.1	-147.1
	13년 누계	842.6	-5,969.3	5,693.9	1,486.0	905.3	-1,568.5	154.5	6.2	4,710.4	-567.2
코스닥	매수	2,212.5	124.0	125.4	29.5	11.7	31.9	16.3	2.8	33.3	19.8
	매도	2,266.7	100.0	94.8	22.1	9.9	24.9	6.8	2.7	28.4	20.2
	순매수	-54.2	24.0	30.6	7.4	1.8	7.0	9.5	0.1	4.8	-0.4
	5월 누계	144.0	189.4	-222.4	-42.9	25.1	-44.2	-22.0	-14.3	-125.0	-111.0
	13년 누계	-1,346.5	907.8	880.8	39.4	78.5	343.6	-87.7	-25.9	542.7	-442.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4,714
서비스업	13,275
음식료품	6,082
기아차	5,943
대우조선해양	5,920
NHN	4,573
CJ	3,536
LG이노텍	3,422
전기가스업	-6,431
보험	-1,444
철강및금속	-1,208
LG전자	-7,645
한국전력	-6,453
삼성물산	-4,187
현대미포조선	-3,633
삼성생명	-2,02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6,162
운수장비	17,986
화학	9,557
삼성전자	40,410
기아차	16,752
현대차	9,699
삼성전기	7,964
LG화학	7,378
전기가스업	-14,957
통신업	-3,057
비금속광물	-321
한국전력	-14,037
현대모비스	-9,817
NHN	-9,151
SK이노베이션	-5,463
SK텔레콤	-5,09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1,307
유통업	661
운수창고	448
현대중공업	934
만도	695
LIG손해보험	605
메리츠화재	550
TIGER 인버스	525
서비스업	-3,457
운수장비	-2,894
전기,전자	-2,422
현대차	-3,339
KODEX 레버리지	-1,787
SK C&C	-1,344
삼성전자	-1,094
KODEX 200	-98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5,388
건설업	3,689
금융업	3,202
KODEX 200	11,864
LG화학	4,112
대림산업	4,100
삼성생명	3,099
삼성SDI	3,095
전기가스업	-5,533
유통업	-4,387
보험	-2,439
SK하이닉스	-5,794
삼성화재	-4,222
한국전력	-3,585
삼성물산	-3,265
기아차	-2,845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6,167
운수장비	26,578
음식료품	16,053
삼성전자	41,227
KODEX 레버리지	23,754
기아차	12,482
KT	9,240
삼성전기	8,757
대우조선해양	8,567
CJ제일제당	7,790
대림산업	6,799
우리금융	6,654
현대차	6,498
전기가스업	-45,186
유통업	-7,194
섬유,의복	-595
한국전력	-39,828
LG전자	-14,769
삼성물산	-11,076
SK하이닉스	-7,763
한국가스공사	-6,529
KODEX 인버스	-5,744
SK이노베이션	-5,694
현대모비스	-5,487
현대차우	-4,905
넥센타이어	-4,38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15,292
화학	13,477
의약품	4,606
SK하이닉스	9,116
삼성물산	7,945
강원랜드	5,565
현대모비스	4,840
현대차우	3,922
롯데케미칼	3,562
KODEX 레버리지	3,509
SK C&C	3,509
LG	3,230
현대미포조선	3,102
전기,전자	-67,022
운수장비	-23,234
철강및금속	-10,180
삼성전자	-46,524
삼성전자우	-20,395
삼성중공업	-14,164
NHN	-7,457
기아차	-6,249
한국전력	-5,298
LG전자	-4,686
대우조선해양	-4,645
SK이노베이션	-4,415
삼성SDI	-4,18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2,664	디지털컨텐츠	-1,566
반도체	2,296	기계,장비	-1,089
인터넷	1,051	출판,매체복제	-389
원익IPS	2,347	컴투스	-1,544
다음	962	에스맥	-763
셀바이오텍	884	테라젠이텍스	-758
에스텍파마	867	에이블씨엔씨	-692
세코닉스	814	위메이드	-54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1,954	인터넷	-2,036
음식료,담배	1,871	방송서비스	-1,168
화학	1,729	출판,매체복제	-1,016
이지바이오	1,462	다음	-2,276
KH바텍	1,386	이라이콤	-1,253
태광	1,087	네팩스	-1,189
JCE	1,050	에스엠	-1,016
모두투어	829	게임빌	-98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834	출판,매체복제	-1,098
IT부품	256	디지털컨텐츠	-330
전문기술	156	화학	-169
덕산하이메탈	418	에스엠	-1,098
서울반도체	246	게임빌	-194
아모텍	147	솔브레인	-150
유원컴텍	94	CJ오쇼핑	-146
멜파스	85	조이맥스	-11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734	출판,매체복제	-2,795
전문기술	1,080	방송서비스	-483
도매	1,012	IT부품	-454
CJ E&M	1,074	에스엠	-3,036
심텍	1,013	CJ오쇼핑	-645
네팩스	632	SBS콘텐츠허브	-624
루멘스	604	이녹스	-364
젬백스	602	모두투어	-319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7,725	출판,매체복제	-11,426
계약	9,633	기계,장비	-1,193
소프트웨어	2,817	인터넷	-934
원익IPS	3,345	에스엠	-11,763
루멘스	3,262	옵니시스템	-1,255
심텍	2,753	컴투스	-1,133
셀바이오텍	2,475	다음	-1,099
메디투스	2,258	이노와이어리스	-792
서울반도체	2,160	성광벤드	-717
JCE	2,106	유진기업	-668
KH바텍	1,673	테라젠이텍스	-654
KG이니시스	1,548	다원시스	-654
코오롱생명과학	1,484	서원인텍	-638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5,226	계약	-9,718
방송서비스	4,161	반도체	-2,118
오락,문화	1,867	섬유,의류	-808
파트론	9,658	셀트리온	-10,092
CJ오쇼핑	2,734	게임빌	-2,994
위메이드	2,148	루멘스	-2,149
인터플렉스	2,042	심텍	-2,056
다음	1,642	서울반도체	-1,888
슈프리마	1,524	에스텍파마	-1,317
GS홈쇼핑	1,449	에이블씨엔씨	-1,152
매일유업	1,251	웰크론	-862
성우하이텍	1,178	인프라웨어	-752
메디투스	1,106	플렉스컴	-72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하나금융지주	16 일	현대엘리베이	27 일
한진중공업	15 일	LG하우시스	22 일
LG이노텍	13 일	S&T중공업	19 일
기아차	11 일	삼성물산	11 일
현대차	11 일	두산중공업	11 일
CJ제일제당	11 일	대덕전자	10 일
한일이화	10 일	현대미포조선	7 일
두산중공업	10 일	현대산업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원익IPS	9 일	GS홈쇼핑	13 일
네패스	7 일	현진소재	10 일
심텍	6 일	네오위즈게임즈	10 일
서울반도체	4 일	엘앤에프	9 일
오스템임플란트	4 일	아트라스BX	8 일
KH바텍	4 일	파라다이스	8 일
하나투어	3 일	시그네틱스	7 일
크레듀	3 일	동서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210,888	SK하이닉스	83,248
삼성전자	105,164	현대차우	42,408
현대차	101,667	삼성물산	26,666
KODEX 레버리지	93,180	신한지주	25,232
우리금융	39,691	롯데케미칼	24,065
현대모비스	38,688	자화전자	23,493
현대글로비스	35,581	SK이노베이션	22,073
삼성전자우	23,806	현대건설	21,739

KOSDAQ			
기	관	외	국 인
심텍	16,184	다음	7,754
원익IPS	15,242	인프라웨어	7,100
게임빌	12,613	성광벤드	6,825
서울반도체	9,587	GS홈쇼핑	6,435
이지바이오	6,579	파라다이스	5,042
하이소닉	6,059	삼천리자전거	4,077
아모텍	5,922	시그네틱스	2,835
코오롱생명과학	5,304	아트라스BX	2,75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8,390		13,477 21,867
서비스업		9,905		1,999 11,904
의약품		6,216		4,606 10,822
KODEX 레버리지		23,754		3,509 27,263
코스맥스		2,245		3,102 5,347
호텔신라		3,439		1,118 4,557
유한양행		2,824		1,338 4,163
두산중공업		2,233		1,842 4,074
한전KPS		1,877		1,880 3,757
에스원		2,800		754 3,554
LG화학우		1,714		1,654 3,369
종근당		1,493		1,278 2,771
GS		2,505		146 2,65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IT부품		2,018		15,226 17,245
방송서비스		1,272		4,161 5,432
소프트웨어		2,817		807 3,624
파트론		1,450		9,658 11,109
원익IPS		3,345		326 3,671
메디톡스		2,258		1,106 3,364
인터플렉스		934		2,042 2,976
GS홈쇼핑		1,430		1,449 2,879
셀바이오텍		2,475		26 2,502
위메이드		32		2,148 2,180
하나투어		1,353		586 1,939
KG이니시스		1,548		300 1,848
유진테크		1,467		379 1,84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동부제철	38 일	CJ제일제당	23 일
LS	30 일	롯데쇼핑	17 일
녹십자	17 일	우리금융	16 일
남양유업	16 일	신세계	14 일
대우인터내셔널	12 일	현대글로벌비스	12 일
삼성물산	9 일	삼성SDI	9 일
대덕전자	9 일	한진해운홀딩스	8 일
호남석유	9 일	기업은행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우주일렉트로	18 일	이트레이드증권	11 일
디지텍시스템	13 일	네패스	5 일
비에이치아이	10 일	씨젠	5 일
SK컴즈	9 일	서울반도체	3 일
포스코캠텍	8 일	덕산하이메탈	3 일
유진기업	7 일	에이블씨엔씨	3 일
파라다이스	7 일	포스코 ICT	2 일
태웅	6 일	한국토지신탁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LG전자	-100,015	삼성전자	-174,735
SK이노베이션	-78,593	대우조선해양	-42,912
롯데케미칼	-71,642	삼성전자우	-42,681
LG화학	-66,023	CJ제일제당	-37,368
삼성물산	-38,850	우리금융	-32,266
현대차우	-37,414	삼성중공업	-31,252
한국전력	-36,564	한국전력	-26,959
엔씨소프트	-34,139	현대글로벌비스	-24,976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3,882	셀트리온	-8,818
에스엠	-12,843	게임빌	-5,529
파라다이스	-10,502	씨티씨바이오	-3,582
다음	-9,020	에스에프에이	-3,075
키움스팩1호	-6,197	에스텍파마	-2,689
대동스틸	-3,390	KG모빌리언스	-2,459
인터플렉스	-3,072	에스엠	-2,257
위메이드	-3,020	바이오랜드	-2,089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가공업	-45,186	-5,510	-50,696
비금속광물	-430	-71	-500
은행	299	113	412
한국전력	-39,828	-5,298	-45,126
LG전자	-14,769	-4,686	-19,456
SK이노베이션	-5,694	-4,415	-10,109
NHN	-1,450	-7,457	-8,907
KODEX 인버스	-5,744	-1,825	-7,568
현대건설	-2,797	-2,096	-4,893
현대제철	-692	-3,969	-4,662
삼성화재	-1,004	-1,717	-2,721
엔씨소프트	-1,214	-1,484	-2,698
한진해운	-486	-1,689	-2,175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장비	-1,193	-801	-1,994
금융서비스	-702	-179	-881
섬유,의류	-15	-808	-823
옴니시스템	-1,255	-117	-1,372
에이블씨엔씨	-5	-1,152	-1,156
크루셀텍	-554	-571	-1,125
테라젠이텍스	-654	-158	-813
성광벤드	-717	-30	-747
유진기업	-668	-1	-670
고영	-382	-283	-665
크루셀엠스	-538	-116	-654
CJ E&M	-49	-448	-497
유원컴텍	-373	-77	-45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현대제철	81	5,955
대우조선해양	183	4,545
KODEX 200	155	3,999
CJ제일제당	13	3,769
OCI	24	3,527
LG전자	42	3,438
TIGER 200	121	3,128
SK하이닉스	84	2,67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에스엠	49	1,978
게임빌	11	1,335
차바이오텐	83	885
파트론	33	784
디지털대성	126	523
씨티씨바이오	16	479
피델릭스	126	477
엑토즈소프트	10	47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987	5,936,299
POSCO	8,413	2,734,110
LG전자	17,818	1,469,996
현대차	6,723	1,391,644
SK하이닉스	32,244	1,012,465
OCI	5,995	875,226
NHN	2,763	861,977
현대모비스	2,892	827,15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834	453,754
파라다이스	5,016	123,652
서울반도체	2,243	80,420
에이블씨엔씨	1,568	75,339
파트론	3,111	72,493
위메이드	1,077	67,973
덕산하이메탈	2,298	62,044
씨젠	958	59,983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장비	3,211	금융업	-1,363
전기,전자	1,949	운수창고	-536
화학	1,882	통신업	-456
SK하이닉스	2,569	KODEX 200	-1,003
대우조선해양	2,079	우리금융	-792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913	현대상선	-599
대우인터내셔널	737	신한지주	-495
두산인프라코어	699	오리엔트바이오	-438
삼성엔지니어링	565	LG디스플레이	-417
GS	547	디피씨	-350
삼성중공업	495	호텔신라	-305
한국전력	469	락앤락	-301
금호타이어	390	코리아써킷	-29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2,375	인터넷	-351
통신서비스	1,503	디지털컨텐츠	-132
제약	695	통신장비	-122
SK브로드밴드	1,307	이상네트웍스	-400
파트론	775	서울반도체	-371
차바이오텐	678	우전앤한단	-224
이지바이오	502	셀루메드	-205
에스텍파마	330	디스플레이텍	-180
에스엠	287	웹젠	-174
아바코	254	인터파크	-154
성광벤드	223	에스맥	-116
주성엔지니어링	213	루멘스	-115
한국정보통신	192	태웅	-94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5/22(수)	05/23(목)	05/24(금)	05/27(월)	05/28(화)
외국인	-5,969.3	-213.8	676.0	129.6	-5.4	-85.2	44.0	-69.8
기관계	5,693.9	590.7	-244.3	114.7	-197.9	6.1	99.2	113.6
(투신)	-1,568.5	-147.5	-442.3	7.8	-149.3	6.2	16.2	39.9
(연기금)	3,583.6	840.7	-43.5	84.8	46.0	15.4	99.6	90.6
(은행)	6.2	-82.8	-1.4	-8.8	-10.8	5.4	-0.2	-7.4
(보험)	905.3	267.1	28.0	30.6	0.6	10.7	-5.4	-2.0
개인	842.6	-229.8	-377.4	-231.0	205.6	82.3	-139.9	-40.0
기타	-567.2	-147.1	-54.3	-13.3	-2.4	-3.1	-3.3	-3.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05/21(화)	05/22(수)	05/23(목)	05/24(금)	05/27(월)
KOSPI	2,033.3	1,825.7	1,997.1	1,981.1	1,993.8	1,969.2	1,973.5	1,980.0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8,344.1	18,232.5	18,386.4	18,708.9	18,230.3
(증감액)	1,996.5	3,611.7	334.1	221.9	-111.6	153.9	322.5	-478.6
(회전율)	50.3	34.2	26.7	32.1	37.4	38.8	31.3	27.5
실질예탁금 증감	-3,502.6	3,775.5	-13,274.3	-218.1	-114.2	71.9	87.4	-332.0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769.4	4,789.2	4,814.4	4,844.7	4,859.0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09.4	123.6	153.3	130.5	155.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5/21(화)	05/22(수)	05/23(목)	05/24(금)	05/27(월)
전체 주식형	91,063	-2,833	-691	75	-112	-141	20	-87
(ex. ETF)		-3,424	-833	-27	-35	-128	-3	-52
국내 주식형	67,282	-1,322	-274	106	-57	-119	47	-62
(ex. ETF)		-1,919	-414	4	20	-104	24	-28
해외 주식형	23,781	-1,510	-417	-31	-55	-22	-27	-25
(ex. ETF)		-1,505	-419	-31	-55	-24	-27	-25
주식 혼합형	9,676	-217	27	-1	-5	-7	-4	-8
채권 혼합형	22,357	3,598	317	-1	1	7	-32	6
채권형	55,802	3,519	242	22	22	104	28	-312
MMF	75,190	11,331	10,031	774	421	1,177	-686	-2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5/22(수)	05/23(목)	05/24(금)	05/27(월)	05/28(화)
한 국	-5,348	-192	-462	116	-5	-76	39	-49
대 만	4,024	2,519	-487	143	-273	-134	2	-101
인 도	14,509	3,175	-123	294	57	-33	-	-
인도네시아	2,281	270	-441	27	-74	-67	-133	-15
태 국	-369	189	-179	108	-104	-	-119	-
남아공	1,496	192	-65	-36	37	22	-8	-
필리핀	1,511	222	-80	-1	6	-21	-30	-35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5/21(화)	05/22(수)	05/23(목)	05/24(금)	05/27(월)	05/28(화)
회사채 (AA-)	3.29	2.96	2.98	2.98	2.99	2.98	3.01
회사채 (BBB-)	8.80	8.59	8.61	8.61	8.62	8.61	8.64
국고채 (3년)	2.82	2.59	2.61	2.61	2.62	2.61	2.64
국고채 (5년)	2.97	2.68	2.70	2.70	2.71	2.70	2.73
국고채 (10년)	3.16	2.91	2.93	2.93	2.94	2.92	2.94
미 국채 (10년)	1.76	1.93	2.04	2.02	2.01	2.01	-
일 국채 (10년)	0.80	0.88	0.89	0.84	0.82	0.83	-
원/달러	1,070.60	1,110.60	1,114.00	1,128.70	1,127.40	1,122.40	1,126.90
원/엔	1,243.73	1,082.98	1,084.82	1,110.37	1,114.91	1,117.17	1,1105.67
엔/달러	86.08	102.55	102.69	101.65	101.12	101.01	101.92
달러/유로	1.32	1.29	1.29	1.28	1.29	1.29	1.29
DDR3 1Gb (1333MHz)	0.67	1.05	1.05	1.05	1.05	1.05	-
DDR3 2Gb (1333MHz)	1.07	1.67	1.70	1.73	1.74	1.76	-
NAND Flash 16Gb (MLC)	1.89	2.98	2.99	2.98	2.99	2.99	-
CRB 지수	295.01	287.92	286.33	286.03	284.89	284.89	-
LME 지수	3,454.5	3,155.1	3,198.1	3,130.9	3,118.6	3,118.6	-
BDI	699	830	829	828	826	826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6.16	94.28	94.25	94.15	93.95	-
금 (달러/온스)	1,663.40	1,377.60	1,367.40	1,391.80	1,386.60	1,393.3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6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5월 22일	260.19	260.10	0.42	-0.09	0.79	132,901	113,836	717
5월 23일	256.66	257.15	0.40	0.49	0.17	217,040	111,842	-1,994
5월 24일	257.32	257.80	0.38	0.48	0.28	178,900	111,878	36
5월 27일	258.19	258.70	0.32	0.51	0.46	166,508	111,347	-531
5월 28일	258.59	259.70	0.32	1.11	0.49	165,289	111,888	541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5월 22일	2,854	22	-2,880	-2,362	-478	-18	26	-50
5월 23일	-879	-3,095	4,128	3,652	-924	-80	188	1,293
5월 24일	-275	581	135	372	130	73	-308	-131
5월 27일	2,944	-2,163	-561	-464	19	235	67	-419
5월 28일	898	-809	-134	608	-700	47	-57	-32
누적포지션	-15,811	3,193	12,479	3,722	9,160	137	-2,063	1,506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5월 22일	597	848	252	587	819	232	10	29	19	4,986	9,539
5월 23일	939	671	-267	890	659	-231	48	12	-36	5,008	9,519
5월 24일	611	537	-74	595	513	-81	16	23	7	5,010	9,423
5월 27일	400	513	114	388	458	69	12	56	44	4,989	9,447
5월 28일	573	560	-13	560	537	-22	13	2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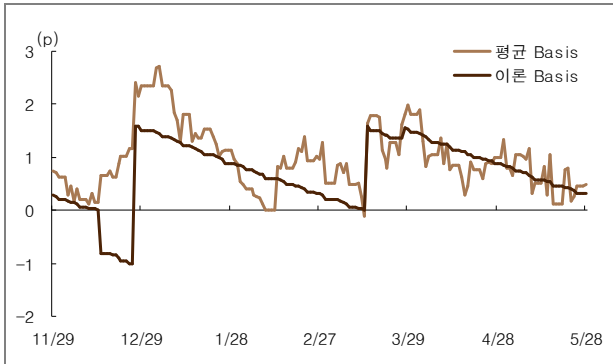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3.28	3,691	98,717	0.21	270.00	10.50	45	19	0.00
13.27	-2,232	165,314	0.43	267.50	8.20	396	102	0.00
13.75	800	184,051	0.89	265.00	6.10	1,943	15	0.00
14.27	1,368	164,991	1.63	262.50	4.35	6,381	465	9.50
15.03	-624	134,853	2.73	260.00	3.00	19,460	624	11.11
16.06	254	16,149	4.20	257.50	1.93	113,872	141	11.90
17.19	-436	6,479	5.95	255.00	1.20	125,858	1,013	12.65
18.60	69	2,019	7.95	252.50	0.74	125,712	2,497	13.45
21.09	22	456	10.25	250.00	0.45	94,689	241	14.24
21.68	3	61	12.35	247.50	0.29	69,870	1,639	15.25
18.96	17	75	14.25	245.00	0.18	51,611	-517	1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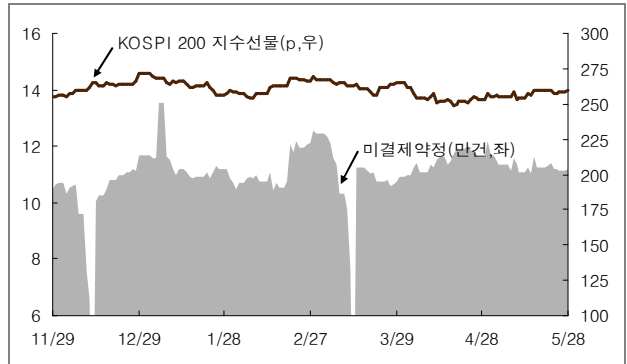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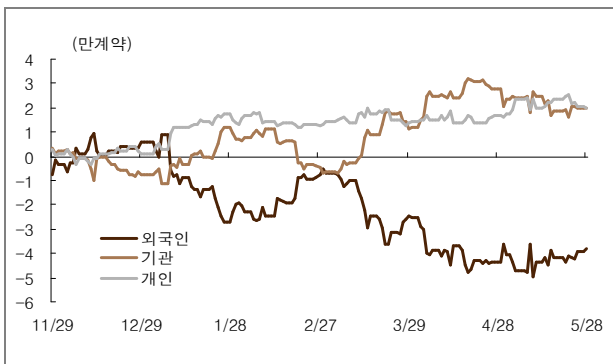
- 평균 Basis: 0.49 (전 거래일 대비 0.03 상승)
- 이론 Basis: 0.32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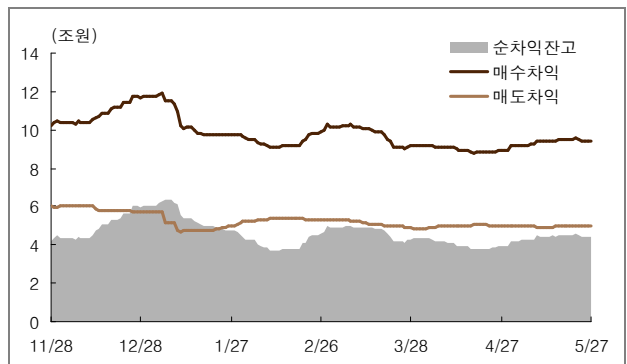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541 계약 증가한 111,888 계약
- 선물가격(259.70): 전 거래일 대비 1.00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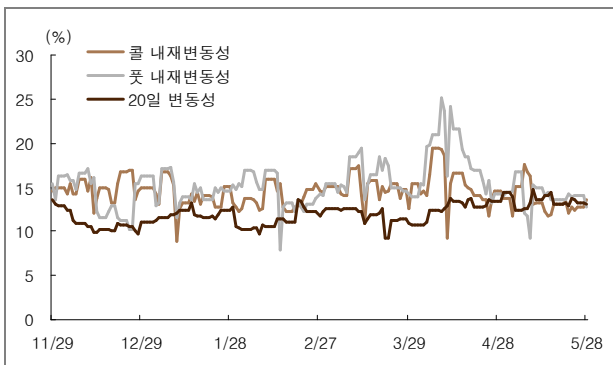
- 외국인: 898 계약 순매수
- 기관: 134 계약 순매도 / 개인: 809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94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222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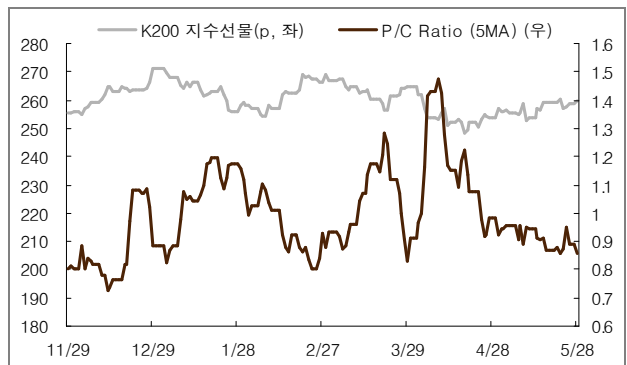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3.6% / 풋 12.8%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3.02%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86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0	21	22	23	24
美> 4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0.53, n/a, -0.23) 日> 3월 동행지수 CI (93.8, n/a, 93.3) 3월 선행지수 CI (97.9, n/a, 97.6)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9.8%, n/a, -7.3%) 4월 기존주택매매 MoM (0.6%, 1.4%, -0.2%) FOMC 의사록 공개 日> 4월 조정상품거래수지 (억 엔) (-7,644, -6,029, -9,198) 4월 무역수지-수출총액 YoY (3.8%, 5.4%, 1.1%) 4월 무역수지-수입총액 YoY (9.4%, 6.7%, 5.6%) 일본은행 정책금리 (0.1%, 0.1%, 0.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0만, 34.5만, 36.0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91.2만, 300.0만, 300.9만) 3월 주택가격지수 (1.3%, 0.8%, 0.9%) 유럽> 5월 제조업 PMI (47.8, 47.0, 46.7) 5월 서비스 PMI (47.5, 47.2, 47.0) 5월 독일 제조업 PMI (49.0, 48.5, 48.1) 中> 5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49.6, 50.4, 50.4)	美> 4월 내구재 주문 (3.3%, 1.5%, -5.9%)
27	28	29	30	31
韓> 5월 한국 소비자 기대지수 (104, n/a, 102)	美> 3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n/a, n/a, 146.57) 5월 소비자대지수 (n/a, 70.0, 68.1) 中> 4월 선행지수 (99.80, n/a, 100.00)	韓> 4월 경상수지(억\$) (n/a, n/a, 498)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9.8%)	韓> 4월 산업생산 MoM (n/a, 0.8%, 2.6%)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4.1만, 34.0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291.2만) 1분기 연간화 GDP QoQ (n/a, 2.5%, 2.5%) 유럽> 5월 유로권 경제기대지수 (n/a, 89.0, 88.6) 5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n/a, n/a, -21.9) 4월 유로권 실업률 (n/a, 12.2%, 12.1%)	美> 5월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n/a, 83.9, 83.7) 日> 4월 국내 CPI YoY (n/a, -0.7%, -0.9%) 4월 실업률 (n/a, 4.1%, 4.1%) 4월 산업생산 MoM (n/a, 0.6%, 0.9%) 4월 자동차생산 YoY (n/a, n/a, -16.4)
6/3	4	5	6	7
韓> 5월 소비자 물가지수 MoM 5월 HSBC 제조업 PMI 美> 5월 Markit PMI 최종 5월 ISM 제조업지수 유럽> 5월 독일 제조업 PMI 5월 유로존 제조업 PMI 中> 5월 HSBC 제조업 PMI 5월 비제조업 PMI 日> 5월 자동차 판매 YoY	美> 5월 총 차량판매 6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유럽> 5월 유로권 PPI MoM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5월 ADP 취업자변동 5월 ISM 비제조업지수 연준 베이지북 발간 유럽> 5월 독일 서비스 PMI 5월 유로존 GDP SA QoQ 1분기 유로권 정부지출 QoQ 中> 5월 HSBC 비제조업 PMI 日> 4월 자동차 판매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유럽> ECB 금리 공시	韓> 1분기 GDP QoQ 1분기 GDP YoY 美> 5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5월 실업률 유럽> 3월 유로권 PPI MoM, YoY 中> 4월 비제조업 PMI 日> 4월 동행지수 CI 4월 선행지수 CI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